봉선사, 진우 스님 초청 청년수계법회 연다

美 보스턴박물관 불사리 이운해 양주 회암사서

5월 총무원장 취임 600일 기념
봉선사-회암사 17㎞ 도보순례도
3개년 사업 '명상문화센터' 건립

남양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인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를 이운해 양주 회암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증명으로 대규모 청년수계법회를 연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1월 15일 경내 휴월당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이어 진행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부처님 사리 이운 및 수계법회'를 소개했다.

수계법회는 조계종이 내달 5일(현지시간) 반환 협상에 나서는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를 중심으로 한다. 이 사리구의 반환은 벌써 15년 전부터 추진돼왔지만 보스턴미술관 측은 사리함을 제외한 사리의 반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 사리와 사리구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사리 반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봉선사는 사리 이운과 청년수계법회를 계획했다.

행사는 5월 18~19일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600일을 맞아 진행될 예정이다. 상월결사 정신을 따라 봉선사에서 양주 회암사까지 약 17㎞를 도보로 순례한 뒤 회암사에서 본격적인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회암사는 우리나라 3대 화상으로 꼽히는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수도처로, 돌려받은 사리 친견도 이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봉선사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가람 중창불사에 나선다. 총 예산 약 190억원을 들여 과거 연꽃유치원 자리에 명상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3년에 걸쳐 건립되는 명상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100여 평 규모다. 또한 장례와 추모 공간인 무량수전 건립도 추진해 봉선사 재정구조 개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호산 스님은 "봉선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불자들이 찾는 사찰로 문화를 통한 포교에 전념하려 한다. 이를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불사를 준비 중"이라며 "상월결사 근본도량으로서 포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반려견 템플스테이와 천도재 등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봉선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청풍루에서 우리말 금강경 독송 특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법문을 맡았다.

주경 스님은 "만공 스님께서는 '삼도'를 갖춘 곳에서 공부하라고 하셨다. 도량, 도사, 도반이 바로 삼도다. 봉선사라는 좋은 도량에서 많은 스님, 불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자체가 삼도를 갖춘 것"이라며 "작은 불이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듯이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금강경 가르침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를 언급한 뒤 "그때그때 보는 것들이 상이 아닌 걸 본다면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숭산 스님께서도 때도 없고 장소도 없다고 하셨다"며 "금강경 독송 정진을 함께하신 여러분이 그런 안목을 길러 참된 불자로 거듭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팔순 노보살 기부에 진우 스님 격려

부산 공민주 보살, '천년을세우다' 불사에 1500만원

팔순 넘은 노보살이 최근 별세한 친오빠와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며 '천년을세우다' 불사에 1500만원을 희사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미래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공민주(81) 보살은 1월 9일 '천년을세우다' 불사 기금 1500만원을 입금했다. 특히 최근 고인이 된 친오빠 천도를 기원하고, 지난해 11월 입적한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보태 3명의 이름으로 각각 500만원을 송금했다.

공 보살은 통도사를 재적사찰로 기도정진해온 신심 깊은 불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불사가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미래본부는 밝혔다. 소식을 들은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직접 공 보살에게 전화해 감사와 격려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본지, 삼론종·여래불교조계종과 MOU

'종단 공고 알림' 서비스 제공키로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 스님)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최근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해불 스님),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 스님)과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협약 종단의 공고 및 소식 알림 등을 별도 지면으로 배정해 각 종단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삼론종은 1989년 창종한 종단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이사 종단 중 하나다. 종정 혜승 스님을 중심으로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비롯, 전국 150여 사찰에 스님 300여 명이 전법교화에 나서고 있다. 간행물은 종보로 〈삼론법보〉(문화관광부 등록) 등이 있으며 매년 수륙대법회, 창종기념법회, 삼론종조 승랑조사 추모다례, 중흥조 대산대종사 열반재, 종도 수련 교육, 자비나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여래불교조계종은 2010년 창종한 종단으로 2022년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종정 성관 스님을 중심으로 총무원장 덕평 스님, 사단법인 이사장 법오 스님을 비롯, 전국 20여 사찰에 스님 30여 명이 전법에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표현해요"

국제포교사회,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대회

전국 각지서 20명 본선 대결
포교원장상에 이채린·이정원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가 전국 어린이들의 열띤 동참 속에 성료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종 결승대회로, 20명의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국제포교사회는 앞서 지난 1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지역대회에서는 117명 어린이들이 참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자타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무수한 전생 동안 수행과 공덕을 쌓는 과정을 담은 경전이다. 자비와 효, 인내 등 다양한 가르침이 담긴 547가지 전생 이야기가 동화처럼 전개,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본격적인 대회 시작에 앞서 회장 정혜 스님은 자타카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을 익혀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전세계에 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참가자들은 '황금접시' '나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명상하는 경비원' '선반나무' '메추라기 왕과 사냥꾼' 등 다양한 주제의 부처님 전생담을 영어로 전달하며 기량을 뽐냈다. 이야기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소품과 의상, 분장 등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서 예선을 거친 어린이 20명이 무대에 올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이채린, 이정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국제포교사회 회장상은 오연아, 김아영 학생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6명의 심사위원을 대표해 심사위원장 김진성 포교사는 심사평을 전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잘 전달하는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참가 어린이 모두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치하하며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가 매년 발전, 종단의 중요행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단 포커스

일붕선교종,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1월 9일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사진〉

신년하례법회는 총무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헌향과 헌화에 이어 신년하례, 호계원장 동청 스님의 상축, 총무원장 혜일 스님의 신년사,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신년인사, 사홍서원 및 신년 떡케이크 커팅식 등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생명들이 부처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잘 익혀서 지혜를 증득하자. 모든 불자들이 마음속 등불을 환히 밝히고 성불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불자회장 취임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취임법회

불교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등
교계·정관계 주요인사 다수 동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장에 취임했다.〈사진〉 대통령실불자회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대 대통령실불자회 이관섭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계와 대통령실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과 함께 부처님전에 헌등하며 새 대통령실불자회장으로 각오를 다진 이관섭 회장은 지난해 11월 입적한 자승 대종사를 추모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불교 전법의 새 지평을 여셨던 해봉당 자승 큰스님을 보내드렸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스님들께서는 자승 대종사님의 큰 뜻을 이어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마음을 모아주셨다.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하는 불교계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불교계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와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불자회는 앞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 이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통령실불자회장을 맡은 이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분연히 나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은 오늘 이 자리에도 이어진다"며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정진하고 그 공덕을 국민에게 회향할 때 정토 세상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불자회와 참석대중은 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국태민안, 국민행복이라는 목표를 다시 되새겨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원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종, 대충 대종사 탄신 98주년 기념

1월1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법회 봉행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내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의 탄신 98주년을 기념해 대종사의 원력과 종단 발전의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98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에서 도용 종정예하와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스님과 내빈은 헌향·헌화를 하며 대충 대종사의 정신과 사상을 기렸다. 헌향·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산 스님과 책임부전 진철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들의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의식이 진행됐다.

의식 후 총무원장 덕수 스님〈사진〉은 봉축사에서 "오늘은 천태종단의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님 탄신 98주년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라며 "대종사님은 대자대비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한결같이 보살피시어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고 제도해주셨다.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불자라면 대종사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덕수 스님은 또 "이제는 천태종도로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가 됐다. 받기만 하는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보살이 돼야 한다. 또 세월만 보낸 불자가 되지 말고, 보살심을 발심해 실천하는 천태불자가 되자"면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모든 사부대중이 불보살님의 가호로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가정이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대종사님은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법통을 계승해 무한 자비심을 펼치셨다"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천태종단 발전이 단양군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삼론종, 1월 15일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1월 15일 포천 보문정사에서 불기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종정 혜승 스님은 "욕행천리(欲行千里) 초보위귀(初步爲貴) 일념초심(一念初心) 성등정각(成等正覺)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대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듯 일념이 시작하는 마음이 등정각을 이루어 내리라)"는 게를 전하며 "각자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해불 스님은 "올해 8월 수련대회는 종단 정체성을 찾는 중국 서하사 성지순례 일정으로 대체하겠다. 법계고시 시행도 추진할 것"이라며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여래불교조계종, 1월 17일 시무식 개최



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평 스님)은 1월 17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총무원 사무국에서 갑진년 종단 시무식을 개최했다.〈사진〉

종정 성관 스님, 총무원장 덕평 스님, 이사장 법오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 성관 스님은 이날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마음을 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에 나서자"며 "새해 종단이 준비 중인 자비은행을 통해 적극적인 자비실천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